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취업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유 동 철*

1. 서론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장애인의 취업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들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데에 있다. 장애인에 대한 많은 복지정책들이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에 대해 여러 가지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해서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장애인 취업생활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취업기회의 부여는 장애인 개인의 존엄을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창조적인 기여를 도울 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 가족구성원의 생활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장애인의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1) 이와 더불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수만큼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2)

그러나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시행 이후에도 장애인의 고용은 크게 확대되지 못하였다. 노동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1991년부터 최근까지 상시근로자 중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0.4%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고용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의무인원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고용장애인 근로자 숫자를 고용의무인원으로 나눈 고용의무 달성률이 약 22~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장애인 992,500명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은 435,500명인 43.9%로 나타났으며,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은 316,100명인 31.9%에 불과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인 장애인 실업률은 약 27.4%로 나타났다(정기원 외, 1996a: 183).

이 수치를 전국 자료와 비교해 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4년 전국경제활동참가율 61.8%에 비해 약 17.9% 포인트 낮으며, 장애인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2.4%와 비교해 볼 때 10여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실적이 여전히 저열한 이유로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제도적 취약성, 장애인의 태도의 문제점, 장애인 기능의 부족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사용자측에서는 장애인들이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다. 일례로 강필수(1994)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 중 100~299인 고용사업체에서 '원하는 기능인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의 3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17.8%를 차지해 장애인의 기능·기술 부족을 장애인 미고용의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1)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91년 1%, 1992년 1.6%, 1993년부터 1995년까지 2%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은 200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었다.

2)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2000년 현재는 1인당 216,000원으로 되어 있다.

서도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공급' 하는 것이 전체 응답업체의 37.0%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반응은 소규모 사업장(50~99인 고용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견해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다(강필수, 1994: 125).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이나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의 효과성 연구가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다만,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술적 수준의 연구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민경희, 1993; 민경희, 1994; 강필수, 1994; 엄승연, 1994; 김송국, 199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5).

또 다른 연구들은(김기원, 1995; 어수봉·최영섭, 1995; 이선우, 1997; 권유경, 1998) 장애인의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고용효과성을 연구의 부분으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론적인 규명작업 없이 분석결과를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급만 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직업훈련은 개별 장애인의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득 증대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국내의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개인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킴으로써 취업을 촉진시키고 임금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많은 사회적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면 이러한 효과가 정상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막아 그 효과는 없거나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이론적 검토

일반적으로 교육·훈련이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효과성에 대한 긍정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교육·훈련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성을 인정하는 이론으로서 인적 자본론, 선별이론, 및 직무경쟁이론 등이 있고, 교육·훈련이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효과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관점으로서 구조적 특성을 강조하는 노동시장분절론, 취향가설, 통계적 차별론 등이 있다.

인적 자본이론의 입장은 노동시장에서 기술 및 숙련이나 지역적인 차이를 제외하고는 수요 및 공급으로 나타나는 노동자(취업희망자)의 속성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고용이나 소득은 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교육이나 훈련은 사람들의 지식능력(*cognitive ability*)을 제고시키거나 또는 구체적으로는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시킴으로써 나중에 작업장에서의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인적 자본이론은 고학력, 고기술 → 고생산성 → 고소득이라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교육·훈련의 정도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이나 소득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선별이론은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인적자본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블라우그(Blaug, 1976)는 교육기회의 확대가 단지 고용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높여 임금불평등을 줄인다는 경험적 근거가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별이론은 교육과 훈련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량은 직접적으로 생산성과 연결되지 않고 단지 사용자에 의한 정보 내지 선별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교육·훈련이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불투명하지만 교육·훈련이 고용주의 선별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훈련의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고용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직무경쟁이론은 앞의 이론들이 개인적 특성을 강조한 반면에 직무나 사회적 제도를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구조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신고전파의 노동시장이론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상태, 즉 임금경쟁을 가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Thurow, 1975).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임금경쟁은 거의 없고 대개 기업 측이 제공하는 직무(job)를 놓고 노동

자들이 서로 일자리를 다투는 경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임금은 미리 정해져 있으며,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태(*queue*)가 바로 노동공급의 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그 직무를 차지할 가능성은 앞으로의 훈련가능성(*trainability*)과 적응가능성(*adaptability*)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 때 훈련가능성과 적응가능성을 암시해 주는 지표가 이전의 교육·훈련의 정도이다. 즉, 이전에 교육수준이 높고 훈련을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훈련이 용이하고 직무에 쉽게 적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이론도 인적자본론이나 선별이론과 마찬가지로 교육·훈련이 고용을 결정짓는 중요 변수가 된다는 입장에 있다.

이에 반해 이중 노동시장론은 노동시장이 하나의 연속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이 아니라 상당히 다른 속성을 가진 2개의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교육·훈련은 제도적인 장벽에 의해 분단된 시장의 성격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중노동시장이론은 1차 노동시장이 고임금, 양호한 노동조건, 고용의 안정성 등을 가진 반면에 2차 노동시장은 반대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승진의 기회가 막혀있어 교육·훈련에 따른 승진효과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이직률도 높다고 분석한다. 또한 여성이나 소수인종, 장애인, 즉 소수집단(*minority group*)은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2차 노동시장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과는 없다고 한다(Doeringer and Piore, 1971).

취향가설은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이 고용주의 선입견으로부터 야기된다는 가설이다. 베커(Becker)에 따르면 차별은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고용주의 선호(*preference*) 및 선입견(*prejudice*)에 의해 발생한다. 즉, 고용주가 소수 집단과 접촉하기 싫어하는 선입견에 의해 차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차별을 하는 사람은 차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감수할 정도의 선입견 및 선호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입견을 심하게 받는 인구집단일수록 고용 기회도 낮고 임금수준도 낮다(Becker, 1957). 고용주의 선입견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선입견의 대상인 소수 집단의 고용과 임금수준은 더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차별적인 취향을 지니고 있는 고용주가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소수 집단은 다수 집단과 경쟁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게 되고 이는 다시 소수 집단 노동자의 낮은 임금으로 귀결되게 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속한 사람

은 생산성과 상관없이 차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교육·훈련의 취업증가 및 소득증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통계적 차별론은 한 개인이 그 자신의 개인적 특성이 아닌 소속집단의 평균적인 특성에 근거해서 처우를 받을 때 차별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고용주가 고용이나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성(sex)이나 인종, 장애 등으로 구분된 집단에서 추정되는 평균적인 생산성을 사용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Phelps, 1972). 이렇게 볼 때 장애인을 고용한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적은 고용주들이 장애인 집단으로부터 추정되는 평균적인 생산성을 적용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결정한다면 이는 선입견에 기인한 차별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소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해당 소수 집단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특성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적용한다면 차별이 되는 것이다. 또한 집단의 평균적인 특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용이 된 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집단 스티그마 때문에 소수 집단의 임금 수준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장애인의 교육·훈련에 대한 정확한 평가보다는 장애인의 평균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의 효과는 없거나 있어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들은 다소 원론적인 이론들이기 때문에 교육·훈련의 효과성에 대해 단정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교육·훈련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훈련의 기간이나 제공주체, 훈련직종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이론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요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원론적이고 단정적인 가설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훈련의 다양한 요인 구성에 따라 차별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생산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론적인 이상의 이론들을 현실적 맥락에서 해석한다는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3. 자료 및 분석모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 방법에 의거해 진행되었는데,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활동제약자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활동제약자 실태조사는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로서 전국에서 다단계 비례 층화표본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표본조사구 내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자료이다. 이 조사는 가구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조사표와 장애인취업실태조사표를 통해 취업실태를 파악한 자료로서 장애인에 대한 표본선택의 편의를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이다.

재가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취업 및 미취업 실태, 고용현황, 직업훈련관련사항 및 직업재활 관련 욕구를 파악하는 데 조사목적에 둔 이 자료는 전국 39,078가구의 130,556명을 대상으로 한 199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확인된 15세 이상 재가장애인 3,218명의 규모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본 연구 의도에 부합되지 않는 대상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대상자로는 15세 미만이거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그리고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420명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취업여부와 소득수준을 상정하였다. 직업훈련의 최종 목적은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소득 향상의 중요한 기제가 되는 것이 취업활동이기 때문이다.

① 취업여부

취업여부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직업에 취업한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시켰다.

② 소득수준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시간당 평균소득의 로그값을 사용한다. 시간당 평균소득을 사용한 이유는 노동시간의 절대적 양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소득수준은 일반적으로 정상분포를 이루지 못하고 분포가 선형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분석결과에 왜곡된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들에서는 소득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활용한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소득분포를 감안하여 소득의 자연대수값을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직업훈련과 관련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상정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의 다양한 점들을 포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업훈련 관련 변수를 직업훈련기간, 직업훈련 제공주체 및 직업훈련직종으로 세분하여 사용하였다.

① 직업훈련기간

직업훈련기간이 늘어날수록 축적되는 인적자본의 양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직업훈련 이수여부보다 직업훈련기간을 상정하였다. 직업훈련기간은 직업훈련을 받은 개월 수를 사용하였는데,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여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구체적인 개월 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② 직업훈련 제공주체

최근의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논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서 효과성이 틀려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기준 변수로 하여 장애관련주체(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훈련원 및 일반사회복지관), 공공직업훈련원, 사설학원, 학교, 공장이나 회사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③ 직업훈련직종

직업훈련직종은 직업훈련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투입되었다. 수요가 많은 직종의 훈련을 받은 사람의 취업가능성이나 임금수준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자료에는 컴퓨터, 전화교환, 산업디자인, 도장, 금은보석가공, 자개 및 칠보, 공예, 인쇄 관련, 제화, 제과·제빵, 편물, 피아노 조율, 의상(봉제), 자수, 건축도장 및 건축목공, 전기·전자기기 수리, 도배, 금속주조, 기계가공, 금

형, 자동차 정비, 배관, 가구제작, 중장비 운전, 이·미용, 요리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를 중공업 및 첨단산업 관련 직종(컴퓨터, 전화교환, 산업디자인, 전기·전자 수리, 금속주조, 기계가공, 금형, 자동차 정비)과 경공업 및 서비스직종으로 이분하여 사용하였다. 이 또한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를 기준변수로 투입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장애관련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노동시장적 요인이 고려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유형

장애유형은 장애인의 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의해 장애유형은 1995년 당시의 장애인복지법상 분류인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로 나누었으며, 지체장애를 기준변수로 사용하였다.

② 장애정도

장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의 불편정도, 일상생활 자립정도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모두 5점 척도로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③ 교육수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취급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술과 기능의 습득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은 원자료의 범주별 변수를 연속변수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졸업은 6년, 중학교 중퇴는 7.5, 중학교 졸업은 9년, 고등학교 중퇴는 10.5년, 고등학교 졸업은 12년, 전문대졸은 14년, 대학졸업은 16년 그 이상은 18년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④ 총경력

경력이 많다는 것은 기능과 숙련의 향상도가 높기 때문에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경력은 고용과 소득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총경력은 현재 직업의 경력을 포함해 모든 취업활동에 종사한 연수를 연속변수로 사용한 것이다.

⑤ 근속년수(소득함수)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하에서 근속년수는 임금수준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현재 직업에 종사한 총 연수를 연속변수로 하여 임금함수에 사용하였다. 현재 직업의 경력은 고용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임금 함수에만 투입하였다.

⑥ 성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취업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2중 노동시장론에서 주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성은 출산 및 육아,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단절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노동시장 참여 형태는 여성을 안정적인 직장에 고용되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성은 더미변수로서 남성일 경우는 1, 여성일 경우는 0을 부여하였다.

⑦ 연령

연령이 높다는 것은 노동시장 내에서 생산기술의 습득과 숙련 향상의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에의 적응 용이성과 변화 가능성 및 통제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취업여부를 결정할 경우 어떠한 영향을 더 고려할지 알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모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연령은 임금수준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연공서열형의 임금구조하에서는 연령의 한 단위 증가가 임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연령은 연속변수인 만 나이를 그대로 투입하여 사용하였다.

⑧ 결혼상태

결혼상태는 고용과 임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취업에 대한 적극성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에도 차이가 있어 고용 및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가구 규모가 커지므로 의중임금도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결혼상태를 미혼, 기혼, 이혼·사별·별거로 원자료에 있는 그대로 3분류하여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⑨ 가구주 여부

가구주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이나 소득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구주는 해당 가구의 주소득원으로서 가구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른 가구원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의중임금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0, 가구주인 경우는 1을 부여하였다.

⑩ 취업형태(소득함수)

취업형태에 따라 소득수준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형태 변수는 자영업을 기준변수로 하여 고용주, 상용근로자, 시간제·임시직·일용직으로 더미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이 변수는 소득함수에만 투입될 변수이다.

⑪ 회사규모(소득함수)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독점이윤의 실현으로 인해 피용자에 대한 임금지급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그리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간에도 이윤 실현의 크기가 다를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규모 변수를 사용하였다.

회사규모는 5인 미만 사업체를 기준변수로 하여 5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500인 미만, 500인 이상으로 더미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⑫ 종사상 지위(소득함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본 연구의 소득함수에서는 소득의 차이가 주로 전문·사무직과 비전문·생산직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하여 전문·사무직과 비전문·생산직으로 더미변수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서비스직과 판매직은 비전문·생산직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변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 이를 독과점시장가설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Ehrenberg와 Smith (1998) 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 분	변수명	정 의	측 정
종속 변수	취업여부	EMPLOY	취업여부 범주 변수 (0) 실업 (1) 취업
	시간당소득	LINC	시간당 소득의 자연 대수 연속 변수
독립 변수	직업훈련기간	TRTIME	직업훈련 개월 수 연속 변수
	직업훈련 제공주체	TRSUP	직업훈련 받은 기관 범주 변수 (0) 안 받음 (1) 장애인관련기관 (2) 공공직업훈련원 (3) 사설학원 (4) 학교 (5) 공장이나 회사
	직업훈련 직종	TROCCU	직업훈련 받은 직종 범주 변수 (0) 안 받음 (1) 사무서비스 관련 (2) 건설기계 관련
통제 변수	교육수준	EDU	교육년수 연속 변수
	총경력	EXP	경력년수 연속 변수
	근속년수	TENU	현 직장에서 계속 일한 년수(소득함수) 연속 변수
	장애유형	DISTYPE	장애유형 범주 변수 (0) 지체장애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언어장애 (4) 정신지체
	장애정도	DISDEG	장애정도 연속 변수
	성	SEX	성별 범주 변수 (0) 여성 (1) 남성
	연령	AGE	만 나이 연속 변수
	가구주	HEAD	가구주 여부 범주 변수 (0) 비가구주 (1) 가구주
	결혼상태	MARRY	결혼 상태 범주 변수 (0) 미혼 (1) 기혼 (2) 이혼·사별·별거
	취업형태	EMTYPE	취업 형태(소득함수) 범주 변수 (0) 자영업 (1) 고용주 (2) 상용 (3) 시간·임시·일용
	회사 규모	SIZE	현재 직장의 규모 (소득함수) 범주 변수 (0) 9인 이하 (1) 10-99인 (2) 100-299인 (3) 300인 이상
	종사상 지위	POSI	현재 고용된 직종 (소득함수) 범주 변수 (0) 전문·사무직 (1) 비전문·생산직

3.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취업에 관한 모형과 소득에 관한 모형으로 나누어진다. 취업에 관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1〉 취업확률 영향 분석 모형

$$\begin{aligned} \text{Logit } [P_i(1-P_i)] = & a + b1TRTIME + b2TRSUP + b3TROCCU + b4EDU \\ & + b5EXP + b6DISTYPE + b7DISDEG + b8SEX + b9AGE \\ & + b10HEAD + b11MARRY \end{aligned}$$

(P_i : 취업할 확률, $1-P_i$: 취업하지 못할 확률, DISDEG: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불편 정도, 자립생활 정도)

〈모형 2〉 소득수준 영향 분석 모형

$$\begin{aligned} \text{LINC} = & a + b1TRTIME + b2TRSUP + b3TROCCU + b4EDU + b5EXP + \\ & b6DISTYPE + b7DISDEG + b8SEX + b9AGE + b10HEAD + b11MARRY \\ & + b12TENU + b13EMPYTE + b14SIZE + b15POSI \end{aligned}$$

이상의 분석모형 중 〈모형 1〉은 종속변수가 취업여부로 이항변수이기 때문에 로짓(Logit) 분석을 사용하였다. 〈모형 2〉의 소득수준 분석 모형에서는 종속변수가 시간당 소득의 자연대수값으로 연속변수이므로 선형회귀분석에 의해 진행되었다. 자료의 분석에는 사회과학통계분석을 위한 SPSS가 사용되었다.

4.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취업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본격적인 분석 이전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 직업훈련 이수여부라는 독립변수만을 상정하여 로짓 회귀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의 취업확률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의 취업확률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였다(어수봉·최영섭, 1995; 이선우, 1997; 권유경, 1998). 또한 직업훈련은 또 다른 종속변수인 소득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⁴⁾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취향시설, 통계적 차별론, 2중 노동시장론의 이론적 함의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의 생산성과 관련된 속성에 대해 시장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만듦으로써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의해 장애인의 직업훈련이 차별이 존재하는 한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현행의 장애인고용정책을 무가치한 것으로 단정지를 위험이 있다. 장애인 직업훈련의 여러 속성들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찾아낼 수도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식화에 장애인 직업훈련을 훈련기간, 훈련제공주체, 훈련직종으로 세분하여 살펴볼 도록 하겠다.

1) 분석대상 장애인의 특성

본 연구는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사례별로 추출확률의 역수인 가중치를 곱하여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가중치가 적용되어 분석에 사용된 총사례수는 모두 435,347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435,347명의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71% (309,125명), 여성은 29% (126,222명)로 남성이 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 분포에서는 가구주가 64.7% (281,488명), 비가구주는 35.3% (153,859명)였으며,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미혼이 18.8% (81,385명), 기혼 67.7% (294,803명), 이혼·별거·사별이 13.5% (58,710명)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45.38세이고, 평균교육연한은 9.13년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분포를 보면 지체장

4)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임금이 낮은 것은 생산성이 낮은 것보다 노동시장의 차별행위에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유동철, 2000).

애가 56.4%, 시각장애가 6.9%, 언어장애가 12.7%, 청각장애가 17.8%, 정신지체가 6.2%로 나타나 지체장애인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4.3% (18,608명)로 매우 적었으며,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94.4% (410,996명)나 되었다. 직업훈련의 평균기간은 0.6개월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절대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공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0.5% (2,186명), 공장이나 회사는 0.6% (2,780명), 사설학원 0.4% (1,786명), 장애인관련기관 1.9% (8,403명), 학교 0.6% (2,544명)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장애인관련기관에서 많은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직업훈련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공업·첨단직종의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2% (5,166명), 경공업·서비스직종의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7% (7,591명)로 나타나 경공업·서비스 중심의 직업훈련이 많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속변수와 관련하여 취업한 사람은 72.6% (316,071명)이고 27.4% (119,276명)는 실업상태였으며, 시간당임금은 평균 2,735원으로 나타났다.

2) 직업훈련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직업훈련의 세부 범주들이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훈련기간은 장애인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훈련기간은 훈련의 질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장애인의 경우 취업이 안 되는 경우 직업훈련을 길게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훈련기간만을 고려한 장애인 직업훈련은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 제공기관에서는 장애인의 특성과 훈련내용에 따라 계획적인 직업훈련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이나 그 가족의 요구에 따라 훈련기간을 연장하는 일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 제공주체에 있어서는 장애인관련기관과 학교는 취업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설학원은 취업가능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직업훈련원과 공장·회사에서의 직업 훈련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관련기관과 학교에서의 직업훈련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장애관련기관과 학교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훈련 내용이 공예, 농업, 제빵, 조립, 안마 등의 전통적인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하고 있고

〈표 2〉 직업훈련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

변 수		회귀계수	유의수준	Exp(B)	
독립 변수	훈 련 기 간		-.0052	.0040	.9948
	훈련주체	장애관련기관	-.0177	.7125	.0479
		공공직업훈련원	.4699	.0000	1.5998
		사설학원	-.8967	.0000	.4079
		학교	-.0304	.7171	.0309
		공장·회사	.7535	.0000	1.4707
	훈련직종	중공업·철단	.4405	.0000	1.6437
경공업·서비스		-.6924	.0000	.9679	
통제 변수	교육수준		-.0055	.0002	.9946
	총경력		-.0167	.0000	.9834
	장애유형	시각장애	.2952	.0000	1.3434
		청각장애	.7280	.0000	2.0709
		언어장애	-.3792	.0000	.6844
		정신지체	-.0884	.0000	.0924
	장애정도	건강상태	-.1444	.0000	.8656
		활동불편정도	-.0397	.0000	.0405
		자립생활정도	-.2043	.0000	.8153
	성 별		.0113	.3482	1.0114
	연 령		-.0023	.0000	.9977
가구주		1.2458	.0000	3.4758	
결혼상태	기혼	.7345	.0000	2.0844	
	이혼·사별·별거	.0899	.0000	1.0941	
상수			.1483		

Model Chi-Square (유의수준)

52278.448 (.0000)

Goodness of Fit (유의수준)

345000.112 (.27349)

예측정확률

74.01%

〈표 3〉 직업훈련 실시 지정기관 직종현황

구 분	계	중공업 및 첨단산업계열						경공업 및 1차산업				안마	기타
		기계	전산 정보	전기 전자	자동차	의상	인쇄	공예	농업	제빵	조립		
계	93	6	11	9	4	2	1	19	19	4	4	4	5
공공직훈	26	6	8	2	2	1	1	1					5
특수학교	39		1		1			11	19	3	2	2	
인정직훈	9		1	3	1	1		1			1	1	
이용시설	14		1	4				6		1	1	1	

자료 : 박휴성(1999: 11).

전기·전자나 자동차, 컴퓨터와 같은 고숙련을 요구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이 잘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공공직업훈련원의 경우 훈련직종이 전산 정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 노동수요가 풍부한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며 공공직업훈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경우 경증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표 3〉 참조).

한편, 직업훈련 직종별 취업확률의 영향을 보면 경공업·서비스직종의 경우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공업·첨단산업직종의 경우는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무·서비스직의 경우 전통적인 직업훈련(도배, 이·미용, 도장, 금은보석가공, 공예, 제화, 제과·제빵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중공업·첨단산업 직종의 경우 컴퓨터, 산업디자인, 전기·전자수리, 자동차 정비 등의 노동수요가 많거나 증가하고 있는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 장애인의 선행연구들에서 직업훈련 이수여부가 장애인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전통적인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이 많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중공업이나 첨단산업직종 직업훈련의 긍정적인 영향이 상쇄되어 버리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총 경력이나 교육수준이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취업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시설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기보다는 공공직업훈련원과 같이 노동수요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의 취업은 차별과 생산성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기존의 이론들이 너무 극단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따라서 장애인의 차별을 강조하여 생산성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며, 생산성 향상 일변도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잘못이다. 생산성 향상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도 차별의 영향으로 많은 부분 그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적절히 쫓아갈 수만 있다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직업훈련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직업훈련이 장애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를 보면 직업훈련기간은 장애인의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제공주체별로 살펴보면 장애관련 기관에서 받는 직업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직업훈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에 미치는 영향과는 다른 결과인데 이를 통해 직업훈련 제공주체에 따라 직업훈련이 소득에는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관련 기관에서 받는 직업훈련은 장애인의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울펜스버거(Wolfensberg)가 주창한 정상화이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직업훈련 직종별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중공업·첨단직종의 직업훈련은 미약하나마 소득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경공업·서비스직종의 직업훈련은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훈련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훈련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공업·첨단직종 중심으로 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4〉 직업훈련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변 수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유의수준	
독립 변수	훈련기간	.006	.024	.134	
	훈련주체	장애관련기관	-.178	-.031	.000
		공공직업훈련원	-.023	-.004	.543
		사설학원	.088	.012	.142
		학교	-.013	-.001	.776
		공장·회사	-.001	-.000	.998
	훈련직종	중공업·침단	.063	.019	.008
		경공업·서비스	-.390	-.055	.000
교육수준		.044	.176	.000	
총경력		-.0046	-.006	.051	
장애유형	시각장애	-.0435	-.013	.000	
	청각장애	.0215	.009	.000	
	언어장애	-.173	-.057	.000	
	정신지체	-.525	-.110	.000	
장애정도	건강상태	-.041	-.056	.000	
	활동불편정도	-.0092	-.015	.000	
	자립생활정도	-.032	-.032	.000	
성 별		.287	.131	.000	
연 령		-.010	-.152	.000	
통계 변수	가구주		.182	.089	.000
	결혼상태	기혼	.286	.144	.000
		이혼·사별·별거	.146	.051	.000
	근속년수		.004	.048	.000
	취업형태	고용주	.594	.131	.000
		상용	-.033	-.019	.000
		시간·임시·일용	-.0465	-.020	.000
	회사규모	5~29인	.200	.090	.000
30~99인		.296	.098	.000	
100~299인		.248	.050	.000	
300~499인		.334	.059	.000	
500인 이상		.270	.069	.000	
종사상 지위		.250	.096	.000	
상 수		10.150			
R-Square		.250			
F of Fit (유의수준)		2353.766 (.000)			

한편 총경력은 장애인의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인의 경우와 상반된 것으로 장애인의 경력은 노동시장에서 별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은 취업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차별적 성향이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차별이론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의 직업훈련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론의 극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시장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도 존재하지만 생산성에 대한 고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직업훈련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직업훈련의 총량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직업훈련의 세부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 경향과 생산성 저하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들이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차별적 요소로 인해 직업훈련의 효과가 많은 부분 상실되긴 하지만, 장애인의 직업훈련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수요와 관련된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감안한 직업훈련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장애인의 취업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장애인 직업훈련이 취업과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반인에 대한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노동시장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영향은 직업훈련의 세부적 내용이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직업훈련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훈련기간, 훈련제공주체, 훈련직종으로 세분하여 이들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직업훈련 기간은 장애인의 취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기간이 긴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취업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일수록 더 오랫동안 훈련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훈련 제공주체별 분석결과에서는 장애관련기관의 직업훈련은 장애인의 취업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으나 임금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직업훈련원의 훈련은 취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소득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설학원의 경우에는 취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소득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소득 모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장이나 회사의 직업훈련은 취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소득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직종별 영향을 보면 중공업·첨단직종의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공업·서비스직종의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소득 양자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에서 훈련기간은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훈련제공 주체에서는 공공직업훈련원이나 공장·회사에 기반한 훈련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훈련직종이 취업가능성이나 소득에 일관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훈련직종, 특히 중공업이나 첨단산업 중심의 훈련이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직업훈련의 세 요소 중 취업과 소득에 일관된 영향력을 보인 것은 훈련직종밖에 없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장애인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직종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산업기술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민감하게 훈련직종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중공업이나 첨단산업직종의 직업훈련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관련기관(복지관 등)의 직업훈련이 현행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의 노동시장참여와 소득향상에 별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2000년 7월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1/3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직업훈련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강필수. 1994. "장애인 취업실태 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권유경. 1998. "한국 장애인의 피고용여부와 월임금수준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원 외. 1995. "장애인 근로자 장기근속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26호. 한국사회복지학회.
- 민경희. 1993.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고용활성화 방안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민경희. 1994. "근로장애인의 복지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박휴성. 1999.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훈련 현황." 《장애인고용》 30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어수봉 외. 1995.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엄승연. 1994. "장애인 취업욕구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유동철. 2000.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 영향 분석 :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우. 1997.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3호.
- 정기원 외. 1996a. 《장애인의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원 외. 1996b.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원오. 1999. "저소득계층의 직업훈련효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4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Baldwin, M. L. and W. G. Johnson. 1995.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y." *Industrial Relations*. 34(4). Blackwell.
- Becker, Gary S. 1957.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cker, Gary S. 1964. *Human Capital*. NBER.
- Bruce, W. M. and J. W. Blackburn. 1992. *Balancing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Quorum.
- Doyle, Brian. 1995.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Mansell.
- Ehrenberg, R. G. & R. S. Smith. 1998. *Modern Labor Economics*. Scott, Foresman and Company.
- Gill, A. M. 1989. "The Role of Discrimination in Determining Occupational Structur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2(4). Cornell University.

Mincer, Jacob. 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Columbia University Press.

Phelps, E. S. 1972. "The Statistical Theory of Racism and Sexism." *American Economic Review*. 62.

Thurrow, L. 1975. "Education and Economic Equality." in D. Levine & M. Bane(eds.). *The Inequality Controversy: Schooling and Distribute Justice*. NY: Basic Books.

A Study on the Job Training Effects on Employment and Income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Yu, Dong-chul

(Institute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job training effects on employment and incom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pursue such goal this study divides the job training into three factors: total training time, types of training supplier, and occupational training types.

The major findings are:

- (1) Total training time decreased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but was not significant for income.
- (2) Among the types of training supplier, public job training center and firm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Private job training center increased income significantly.
- (3) Among the occupational training types, trainings focused on heavy industries and advanced industries increased both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and income.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should focus on the occupational training types, especially on trainings focused on heavy industries and advanced industries.